

# 고흥, 전북·새꼬막 등 양식 마을어장 넓힌다

## 郡, 전남도에 74건 2904ha 승인 요청

고흥군이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어장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친환경 양식업과 마을어장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26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1월 어장이용 개발계획 세부지침을 마련해 어민들로 부터 개발신청을 접수 받은 결과 110건 4025ha(해조류 25건 455ha, 패류 36건 414ha, 어류양식 1건 5ha, 복합양식 4건 35ha, 마을어장 44건 3116ha) 규모의 사업이 접수됐다.

고흥군은 수산조정위 심의를 거쳐 각종 재해와 어장환경오염 상황을 감안, 업종간 분쟁지구·항로 수면을 제외하고 이 가운데 74건 2904ha를 승인해 달라고 전남도에 요청했다.

어장이용 개발 품종으로는 양식어업의 파래, 미역, 전복, 새꼬막, 어류 등이다.

또 마을어장 내에서 자연산 물바지락과 새조개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 어장의 효율성을 높여 어업인 소득을 올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 어장개발은 4월 말께 전남도 지사의 승인이 나오면 7월부터 10년간 면허처분을 해 관내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흥군의 어장개발 면적은 965건에 2만7055ha(양식어장 745건 1만4579ha, 마을어장 199건 1만2452ha, 정지망어장 1건 24ha)이다.

고흥=주각종기자 gjuu@kwangju.co.kr



### 여심 유혹하는 동백꽃

여수 오토도를 찾는 여성 관광객들이 만개한 동백꽃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22~23일 주말에만 2만7000명의 상춘객들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했다.

여수시 제공

## 고흥 남열리는 지금 '봄꽃 천지'

### 29일부터 9일간 '힐링축제' 해산물 먹거리장터 운영도

“고흥 영남 남열리로 봄꽃 구경오세요!”

이 가운데 우미산 '천년의 오솔길'의 경우 가족 모두가 걸을 수 있는 '가족 산책로'와 '기(氣)받는 능선길', '삼립육장길' 등 3개 코스로 나눠지며, 빼어난 남해바다 경관과 생강나무꽃, 진달래꽃, 산벚꽃 군락지를 만날 수 있다.

또한 12만㎡의 다랑이 논에 조성된 유채꽃 단지는 주변의 몽돌해변과 사자바위, 웅바위와 조화를 이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봄꽃단지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희 우주항공 사업소장은 “아름다운 바다, 산, 봄꽃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고흥에서 힐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종기자 gjuu@kwangju.co.kr

해 ▲우미산 생강나무꽃·진달래꽃·벚꽃 구경하기 ▲몽돌해변 돌미역·해산물 채취 체험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우주발사 전망대에서는 낙지와 멍게, 홍합, 주꾸미, 꽃게 등 고흥 해산물 먹거리 장터가 운영된다.

이 가운데 우미산 '천년의 오솔길'의 경우 가족 모두가 걸을 수 있는 '가족 산책로'와 '기(氣)받는 능선길', '삼립육장길' 등 3개 코스로 나눠지며, 빼어난 남해바다 경관과 생강나무꽃, 진달래꽃, 산벚꽃 군락지를 만날 수 있다.

또한 12만㎡의 다랑이 논에 조성된 유채꽃 단지는 주변의 몽돌해변과 사자바위, 웅바위와 조화를 이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봄꽃단지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희 우주항공 사업소장은 “아름다운 바다, 산, 봄꽃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고흥에서 힐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종기자 gjuu@kwangju.co.kr

## 어린이 장난감 빌려 드립니다

### 순천 건강센터 보건소 대여소 오늘 문 열어요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보건소 1층에 '아이사랑 장난감 대여소'가 27일 문을 연다.

시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 일환으로 영·유아에게 다양하고 좋은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 장난감 대여소를 추진했다.

79.46㎡ 규모의 장난감 대여소는 이용 선호도가 높은 국내외 브랜드 장난감 600여 점을 갖추고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살균시설을 갖춰 대여 장난감의 위생과 안전문제를 사전예방

한다.

이용자격은 주민등록상 순천시에 거주하는 6세 이하 보육가구로, 회원가입후 연회비 1만원을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다. 차량위계층 등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연회비가 면제

된다.

특히 장난감 대여소는 전문 간호사와 전문 보육사를 배치해 연령별 장난감 선택시 도움을 주며,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활동을 돕는다. 문의(061-749-6916)

/순천=예정열 기자 ejkim@

## 600년전 보성 호적문서 교과서 실려

조선시대인 600여년 전 보성군이 발급한 호적 문서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보성군에 따르면 세종 3년(1421년) 보성군수가 발급한 호적문서가 두산동아 고등 한국사 108쪽에 실렸다.

이 문서는 보성군수가 독립면 정읍리에 거주한 보성 선씨 문중에 발급한 것으로,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 호구제도와 문서양식, 등재 범위 등을 알려주는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주된 내용은 고려말 왜구의 침입으로 호적문서가 소실된 선씨 가문의 요청을 보성군에서 받아 발급

한 호조(戶曹)의 승인을 얻어 발급한 것이다.

이 문서는 그동안 발굴된 호적(호구) 가운데 국보 131호인 이성계 호적(139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원본 호적이다.

조선시대 최초의 호적 관련 공문서로 작성시기와 가치 등의 측면에서 국가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 현재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다. 당시 부부간 남녀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호적에 등재됐음을 알 수 있어 역사적 자료 가치가 높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 전북

# '함파우 유원지' 오감만족 관광지로

## 남원시, 2016년까지 142만㎡에 142억 투입 김병중 미술관·소리 명상관·도예촌 등 조성



남원시가 '함파우 유원지'를 오감만족형 관광지로 만든다.

남원시는 142만212㎡ 규모의 함파우 유원지에 남원시 최초의 공립 미술관인 '김병중 생명 미술관'과 '소리 명상관', '남원 도예촌'을 오는 2016년까지 완공해 관광객들에게 눈과 귀가 즐겁고, 머무를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함파우 유원지는 남원 주요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춘향 테마파크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접근하기에 매우 좋은 곳이다.

시립 '김병중 생명 미술관'은 사업비 35억원을 들여 부지 8000㎡, 건물 1300㎡에 전시실과 기획전시실·수

장고 등을 갖추게 되며, 2016년 완공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시는 김 교수와 미술관 건립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

'소리 명상관'은 총사업비 100억원 을 투입해 2015년까지 소리 공연장, 전통한옥 숙박촌, 소리 명상길, 생명의 노래길(걷고 싶은 거리), 문화예술 쉼터공원, 실개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소리공연장을 건립해 농악 관련 전수·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남좌도 농악의 발상지인 남원의 면모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남원 도예촌'은 7억원을 들여 올

해 부지조성을 완료한 후 분양공고를 통해 도예 빌리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도예인들의 작품활동 공간과 체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함파우에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오감만족형 문화·관광 인프라가 조성되면 '문화도시'로서의 남원시 위상 제고와 함께 관광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 기자 bs8787@

## 단신

### 새만금 마라톤대회 구간 가로 환경정비

2014 새만금 국제 마라톤대회를 앞두고 군산시 공무원과 시민들이 지난 25일 마라톤대회 구간인 신봉동 일원에서 가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신봉동사무소 직원과 신봉동 단비봉사단(단장 박우순 동장),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 화분과 주민센터 주변

에 팬지 3500본을 식재했다. 또 마라톤대회 관내 마라톤 코스 구간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쓰레기를 수거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군산 새만금 국제 마라톤대회는 4월 13일 오전 8시 군산 월명 종합경기장에서 열린다.

/군산=박승기 기자 jk@kwangju.co.kr

### 남원 부절마을-북전주로타리클럽 결연식

남원시 산동면 부절마을과 북전주로타리클럽은 지난 25일 부절마을회관에서 지역사회봉사단 창립 및 결연식을 가졌다.

이번 결연은 부절마을 출신인 서봉열 북전주로타리클럽 회장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양측 대표는 상호 협정서를 교환

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갖기로 약속했다.

또 로타리클럽은 마을발전기금(50만원)과 주방용품을 마을에 전달했고, 부절마을은 마을 특산물인 짬뽕과 농산물을 선물했다.

/남원=백성기 기자 bs8787@

### 정읍경찰서, 4대 사회악 근절 간부회의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는 지난 24일 3층 대회의실에서 각 과·계장, 지구대(파출소)장,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 사회악 근절 및 범죄예방을 위한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화교폭력 예방 활동을 적극 나선 허준 씨와 의경 심리삼당·차유에 힘쓴 박

다정 씨 등 시민 13명과 치매노인을 극적으로 구조한 신태인파출소 장일식 경위 등 경찰관 9명에게 감사장 및 표창을 각각 전달했다. 김동봉 서장은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치안정책을 펼치고,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경찰상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

## 내장산 '생태탐방 연수원' 조성 공동 노력

### 정읍시·내장사·내장산사무소

정읍시와 내장사,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 3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사계절 볼거리가 있는 내장산 조성에 발 벗고 나선다. 지난 24일 열린 간담회에는 김생기 시장과 서운석 내장산사무소장, 내장사 무진스님 등이 참석해 상호 소통의 시간을 갖고 10건의 현안을 토의했다.

시는 2015년 신규사업으로 내장산에 '국립공원 생태탐방 연수원'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 등을 제안했다. 내장산사무소는 내장산 사계절 명소화를 위해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고, 맞춤형 탐방서비스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외국인 탐방객 대상의

수화(手話) 및 외국어 탐방안내를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또 내장사는 대웅전 불사(佛事)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개 기관은 매표소부터 탐방 안내소에 이르는 2.3km 구간에 총 5개소의 야생화 단지를 조성해 가을 단풍뿐만 아니라 사계절 볼거리가 있는 내장산을 조성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읍시 관계자는 “내장산과 인근 월영습지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원과 정읍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생태관광 인프라가 구축되면 관광객들의 '당일 탐방'을 '체류형 탐방'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



### 봄감자 수확 손길 분주

부안군 계획면 한 비닐하우스에서 주민들이 겨우내 키운 봄 감자를 캐고 있다. 지난해 11월 심은 이 봄감자는 5월 초까지 수확이 이뤄진다.

/연평뉴스

### 고창 오거리 당산제보존회, 이웃돕기 성금

고창 오거리 당산제보존회(회장 유양중)는 지난 25일 이웃돕기성금 100만원을 고창읍(읍장 조재길)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한 성금은 지난 정월대보름 때 마을 및 가정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집터를 지켜주는 지신에게 고사를 지내고, 풍물을 울리며 축복을 비는 세시풍속인 지

신밧기를 하고 모은 것이다.

유양중 보존회장은 “보존회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을 기증하고 있다”며 “이번 성금은 읍민들의 정성으로 마련된 것인 만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